NH투자증권

일본 주식시장

AI 모멘텀과 정치 이벤트

Analyst 김채윤 02)768-7725, cynkim@nhqv.com

일본 주식시장, 속도 조절 국면 진입 예상

일본 주식시장은 미국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AI 수요 강세를 촉매로, 어드밴테스트·이비덴·디스코 등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NIKKEI225는 45,000엔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9/16 장중 45,055엔)했고, NT 배율 또한 급등했다.

금번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9/18~19)에서는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의 중요한 변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정책이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하이테크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즉 NIKKEI225가 45,000엔을 안정적으로 상회하기에는 매수 재료가 부족하며, 일본 주식 시장은 단기 랠리 이후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한다.

AI 모멘텀과 정치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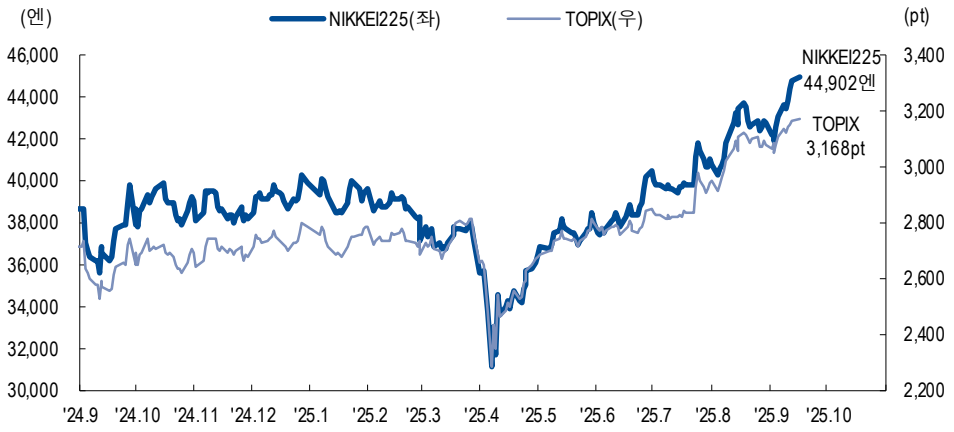
일본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프리미엄뿐 아니라,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를 반영하는 시장 프리미엄 상승이 필수다. 현재 일본은 이시바 정권의 종료와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수 정권의 탄생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향후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 총재 선거(10/4)에서는 고이즈미(좌파·리버럴)와 다카이치(중도보수) 간 결선 가능성에 주목한다. 현지 일본 미디어는 고이즈미 후보를 지지하는 보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시장은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 1) 고이즈미 정권 탄생 시: 시장 프리미엄이 평가절하되며 지수는 단기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후에는 개별 기업 프리미엄이 부각되며 점진적 회복세로 전환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2) 다카이치 정권 탄생 시: 시장 프리미엄 절상이 강하게 작용하여 NIKKEI225 주가지수가 45,000엔을 돌파하고,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상승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선거 전까지의(단기) 일본 주식시장은 NIKKEI225 43,500엔~45,500엔, TOPIX 3,100pt~3,200pt 범위 내에서 추이할 것으로 예상하며 1) 단기 급등 시→이익 확정 매도, 2) 단기 급락 시→밸류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즉, 반도체 관련 성장주(어드밴테스트, 디스코, 이비덴 등)의 비중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리 상승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주와 고배당의 상사주 등 저밸류/그로스 종목을 병행 보유하는 바벨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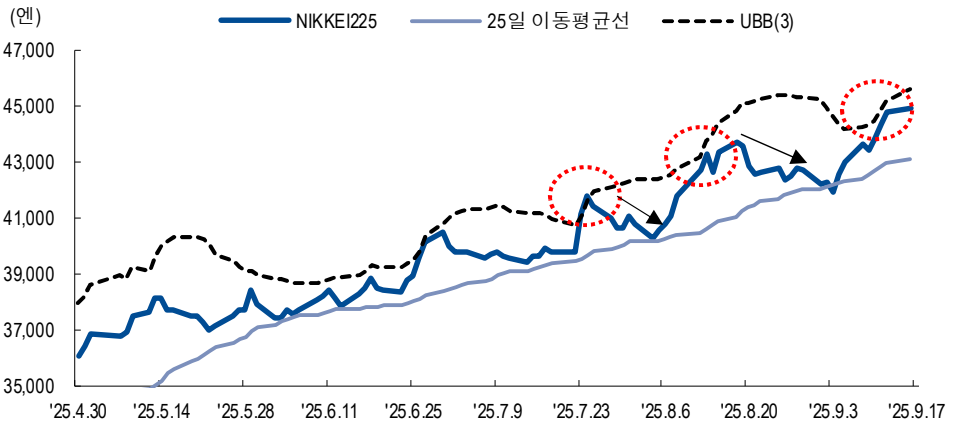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일본 주식시장은 AI 모멘텀과 정치 이벤트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를 동시에 반영하며,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장세를 예상한다. 10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정권 구도에 따라 시장 프리미엄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며, 이는 지수 상승 속도를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는 차익 실현·저가 매수 전략을 병행하면서, 성장주와 금융주를 아우르는 바벨 전략을 권고한다.

그림1. 일본 주식시장, 사상 최고가 경신



주: 9월 16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향후 조정장이 찾아올 가능성



주: 볼린저 밴드+3σ(이동평균선에서 표준편차의 3배만큼 떨어진 상한선. 주가가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과매수 상태. 표준 편차를 이용해 주가 반전을 포착. 밴드 내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 약 99.7%)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